



7월 아파트 2萬6千가구 분양 ————— 14

證市활기...증권저축 다시 각광 ————— 15

호토피아

HOMETOPIA

늦잠자던 아이 시간맞춰 “벌떡”

『전화 영어과외』 인기

서울 한양국민학교 4학년인 吳修政어린이는 아침 6시반만 되면 벌떡 일어난다. 7시면 영어선생님의 「전화과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늦잠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영어공부를 하면서 일찍

일어나게 되었어요. 선생님님이 전화로 공부했나 안했나 물어보니까 그날 그날 밀리지 않고 공부하게 되고

요』 수민이는 요즘 인기를 끄는 「전화로 관리하는 영어과외」의 회원이다.

전화과외는 유아와 국민학생, 더러는 고교생까지를 대상으로 영어교재와 녹음 테이프 비디오등을 판매한

“부모 英語복플렉스 탓... 他律학습” 비판



뒤 「서비스차원」에서 학생들을 전화로 관리하는 신종과외다.

교사가 아침 또는 저녁의 정해진 시간에 학생에게 전화하여 몇가지 단어와 문장을 물어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화시간은 2~3분 정도.

이같은 전화 영어과외는 요즘같은 불경기속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교육산업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가장 규모가 큰 윤선생 영어교실의 경우 회원이 전국에 10만여명. 지난해 문을 연 유니복스 튠튼영어는 1년만에 회원을 3만여명이나 확보했다.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시사영어교실의 「영어로 놀자」도 1년 전부터 전화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뒤 회원수가 부쩍 늘었다고 밝힌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영어과외를 시키는 이유를 전화관리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통 영어공부하라고 아무리 테이프를 사주어도 잘 안듣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전화」라는 강제력이 있으니까 밀리지 않고 공부하더군요』

국민학교 3학년짜리 딸을 둔 李貞惠씨(33·서울 성북구월곡동)의 얘기다. 엄마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말을 안듣는 대신 「선생님」이 한마디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명종」 역할까지 해주는 전화가 시간맞춰 걸려오니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준다고 들려준다.

유니복스의 관리교사인 姜錫今씨(33)도 전화관리의 효

과를 자랑했다.

『공부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어야하게 마련이다. 교사가 매일 전화를 걸면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붙는다. 또 스스로 공부했다는 성취감도 갖게 된다』

이렇게 어린이 전화 영어과외가 유행하는 것은 우선 자신의 영어가 신통치 못하다는 학부모들의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볼수있다.

외국인이 길을 묻는다고 속스러운듯 피하는 「몰래카메라」에서 볼수있듯이 어른들은 자식들만은 영어를 잘해 국제화시대속에서 가슴 펴고 살기를 바라고있다.

또 미리 영어에 흥미를 붙여놓아 중고교때 성적을 올리기 바라는 심리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화과외가 학습습관을 길러준다는 데 회의적이다.

한국심리교육연구소의 梁承園연구원은 『전화가 걸려올때는 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붙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화과외가 끝나면 안할 때와 다름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로 관리한다는 것은 또다른 타율적 학습이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공부하는 독심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인 趙惠貞교수(연세대)는 『부모되기를 포기하는 세대를 위한 자녀교육법』이라는 의견을 들려준다.

엄마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애기해도 권위와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잔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관리교사의 전화담당이라는 외부의 힘을 빌릴수밖에 없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로봇이 나온다면 엄마들은 또 로봇으로 몰릴지도 모를 일이다. (金順德)

관리교사의 전화를 받아 영어를 공부하는 어린이.학부모의 영어콤플렉스와 통제력상실상태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